

데살로니가전서 2:13-16

안녕하세요! 아직 저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드리자면, 저는 아론이고 그레이스 교회 장로팀의 일원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강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으며, 월마리가 방금 읽어준 구절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책,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잘 읽는 편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지를 여섯 번, 일곱 번씩 읽어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페이지 맨 아래까지 읽고 나면 눈으로는 글자를 봤지만 뇌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모든 책을 읽는 것에도 해당되는데, 슬프게도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모로 저는 성경을 읽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몰입이 있어야 비로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콘텐츠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만약 그 부분이 없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마녀가 사무엘의 영혼을 되살리는 장면처럼,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장면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녀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내 타쉬는 우리 가정 모임에서 이런 구절들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자주 꺼내는데, 그때마다 저는 완전히 막막해집니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성경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무관하다고 결론짓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2, 3, 4천 년 전 비교적 원시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현대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몽주의 시대도 겪었고, 산업혁명도 경험했구요.

이제 우리는 휴대할 수 있는 4인치 크기의 컴퓨터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이로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세부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당신은 용서받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는 우리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 아니면 그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통찰력 있는 글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호작용한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입니다.

- 그들 들었다 그것.
- 그들 받았다 그것.
- 그들 수락됨 그것.

그래서 그들 중 첫 번째 부류는 바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텍스트로 듣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중 한 명이 바울이며,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나눈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물론 바울만이 유일한 인간 저자는 아니었습니다. 약 1,500년에 걸쳐 세 대륙에 걸쳐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글을 쓴 저자가 약 4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더군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고대 그리스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대 그리스어 사용자분들께 미리 사과드립니다만, "받아들였다"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는 "paralambano"이고, "수락했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dechomai"입니다.

그래서 "파라람바노"는 넘겨받거나 전해진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

그들은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데쇼마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받은 것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 전령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내용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삶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인 적용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잘 읽든 못 읽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친구와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간구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용한 종교적 사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 읽고 어려운 부분은 조용히 무시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심판관처럼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자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지 선택적으로 고르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척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선호하는 것에 이미 들어맞는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에 도전하고, 우리의 전제에 도전하고, 우리의 본능에 도전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에 도전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부 구절이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해석과 선택적 수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구절을 깊이 고민하는 것과, 그 구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구절을 무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혹을 받으실 때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는 성경을 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는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가 아닙니다.

"문화와 일치할 때만 당신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내가 편안하게 느낄 때만 진실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부분만,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이미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믿고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 올바른 것을 믿는 것은 단지 시작점일 뿐,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 시간, 인간관계, 야망,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 등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완전히 중심이 되려면.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책의 구성 방식, 정교함과 일관성,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그토록 솔직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내가 보는 세상을 설명하고, 내가 아는 나 자신을 설명해 줍니다.

제게 더 어려운 부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 말씀이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토요일 오후 설교에 동의하며 "아멘"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혼 생활, 재정, 야망, 분노, 성생활, 자녀 양육, 우정, 직장, 사적인 생각,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들에까지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 안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안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공항에 몇 시에 가야 할지 등을 성경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복잡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대해지기 위해.

험담하려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단,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의 성품에 뿌리내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임의로 정한 제한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죠.

때로는 순종이느끼다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느끼다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우리 삶의 권위로 받아들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나는 성경을 믿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나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내가 이미 어디를 보고 더 잘 안다고 단정 지었을까?

성경 전체가 원칙적으로는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이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저장해 둔 정보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1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제에 주목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끝난 일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오후, 당신이 이 방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책꽂이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어, 우리가 가끔씩 유용한 내용을 꺼내 읽기를 기다리는 낡은 지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고 활동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안에 들어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꿰뚫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건 다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책이 아닙니다.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다거나, 예전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거나, 신학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나요? 조용히, 혹은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지 않게,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고쳐야 할 관계, 버려야 할 습관, 놓아버려야 할 원망에 대해 당신에게 말을 걸었나요?

그것이 당신이 익숙해져 있던 것을 뒤흔들었나요? 진정으로 힘든 시기에 당신을 위로했나요? 아니면 화요일 저녁을 보내는 방식, 배우자와 대화하는 방식, 또는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답은...”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 소음처럼, 토요일에 잠깐 듣고 다음 주까지 미뤄두는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며, 저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성된 작품이라는 뜻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믿어.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저는 바울이 바로 이 14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족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빛어진 사람들로서, 그 말씀으로 빛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 방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유대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집에서 끌려나오거나 박해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오늘 오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박해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겪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관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 마음속의 죄와 끊임없이, 지치도록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친구 모임,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과 약간 어긋난다는 느낌과,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누리다 보면, 신앙을 지키는데 드는 대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요일에 한 말과 나머지 요일에 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서 다른 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섬기면서 다른 쪽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받음은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거의 수학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타락한 세상에서 동일한 종류의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필연적으로 긴장과 반대의 지점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대 교회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후로 매 세기마다 신실한 교회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도전도, 대가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단순히 평온한 시기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변화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극적이고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방식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대가가 당신의 삶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와 함께 사랑과 거룩함, 관대함과 인내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정반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환영했지만, 이 반대자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들 중 일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들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그들은 항상 죄악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마침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유대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초기 신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거부하고, 그의 사자들을 박해하며,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던 특정한 반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끔찍하게 오용되어 왔지만, 바울이 하려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바울이 마치 의기양양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적들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을 생각하며 손을 비비는 것처럼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바울이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들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복음, 즉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경 이야기의 솔직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영감이 필요한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친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었고,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의심하거나 어려운 질문으로 고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에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마침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승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영원히 눈감아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2026년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유행에 뒤떨어지지만, 본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부분만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마치 이것이 단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복음에 명백히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경고인 것처럼 편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후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길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그 말을 듣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묘사한 사람들처럼 크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히 수동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고대 지혜를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고, 활동하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일까요?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도 삶에서는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편안한 중간 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쭙봐도 될까요? 이 책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영감이나 위안을 얻기 위해 가끔씩 손이 가는 물건인가요? 있으면 좋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진심으로 방해받을 일은 거의 없는 그런 물건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말했듯이, 오늘 오후, 이번 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편안하든 불편하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고, 어쩌면 수년 동안 이와 같은 모임에 참석했을지도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에 좋은 사상이 담겨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우리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그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사실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것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크든 작든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 하는지 말입니다.

책꽂이에 꽂힌 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을 듣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동의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기도합니다.